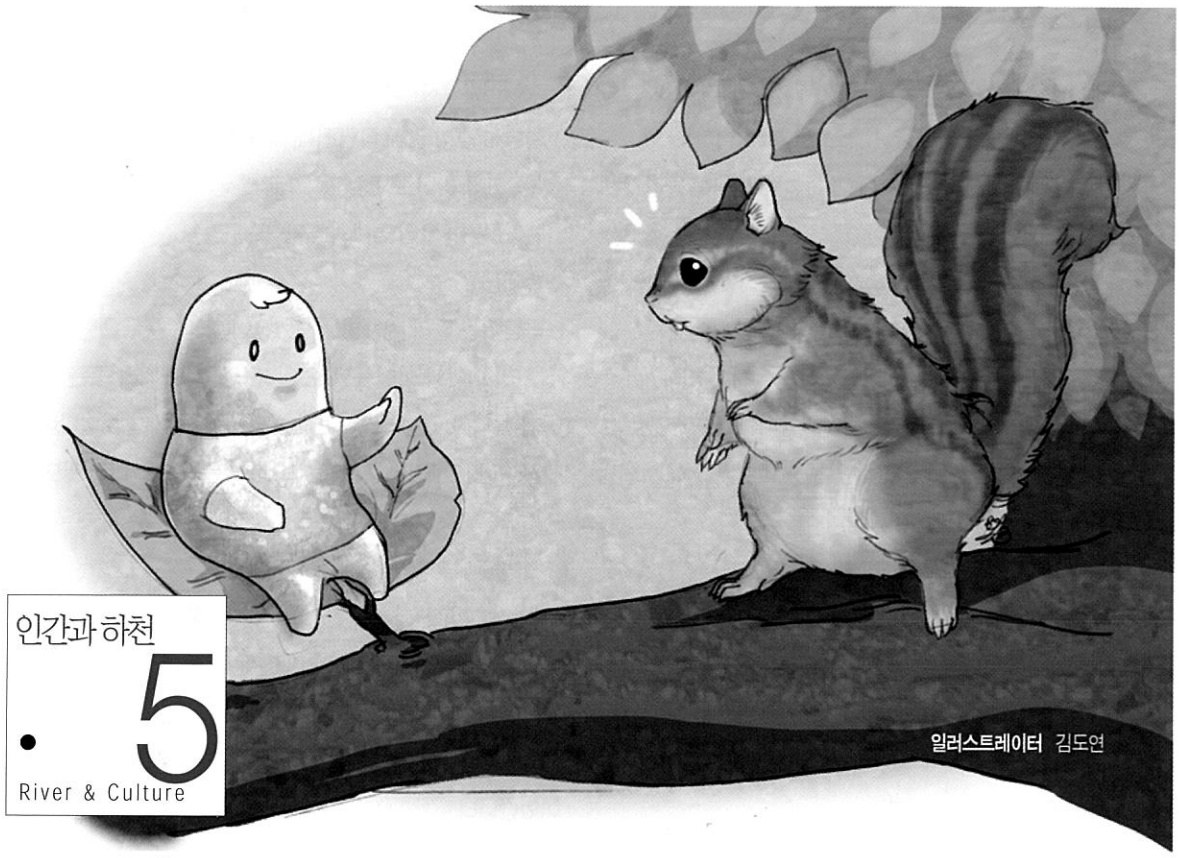

인간과 하천 • 5
River & Culture

일러스트레이터 김도연

김 정 현 | 동화작가
(kimskorean@naver.com)

하천과 동화

다람쥐와 물방울

다람쥐는 나무를 잘 탑니다. 높은 데를 오르내리기를 하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람쥐는 먹기를 잘 합니다. 먹고 먹어도 배가 고픈지 자꾸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다람쥐는 나무가 많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잣나무, 밤나무, 도토리나무 등 온갖 나무가 있는 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또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 길에 햇빛에 반짝거리는 옷을 입고 나무 잎에서 놀고 있는 물방울을 만났습니다.

"너 거기서 뭐하니?"

다람쥐는 물방울을 쳐다보고 물었습니다.

"나! 하늘나라 햇님을 보고 있어."

"햇님은 왜?"

"난 꼭 이 시간이면 내 엄마와 아빠가 있는 하늘나라를 보는 거야."

"그래? 그럼 넌 하늘나라에서 온 아이구나."

"응."

"내가 가끔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하늘나라를 보는데

참 큰 나라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한번 가 봤으면 했어."

다람쥐의 이 말에 물방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 넌 무거워서 안 돼. 무거우면 하늘나라에 못 올라가 보는 거야. 나처럼 매우 가벼워야지."

"난 그래도 저기서 풀 뜯고 있는 토끼보다 훨씬 가벼운데 그러니?"

"그러니까 저 애는 나무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거야."

다람쥐는 그 이상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얼마 후 아까 봤던 물방울이 있는 곳으로 왔을 때는 물방울은 어데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먹을 걸 찾으러 갔나?'

다람쥐는 궁금해 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물방울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다람쥐는 어제 그곳에서 물방울을 보았습니다.

"너 어제 어데 갔더랬니?"

"난 아침이 지나면 저기 개울로 가서 놀지. 물 있는데 말이야."

"물에 가 논다고? 너, 무섭지 않니?"

"물은 우리 형제야. 다 하늘에서 내려 보낸 형제들이야."

"그렇구나. 넌 형제가 많아서 좋겠다. 그런데 난 말이야. 물만 보면 무서워 죽겠어. 언젠가 나는 비오는 날 개울가에 갔다가 미끄러져 빠져 죽을 뻔 했어. 그런 후로 개울가엔 절대로 안 가기로 했어."

다람쥐는 사실 물이 무서웠습니다. 왜냐구요? 수영을 죄금도 못하기 때문이었죠. 나무는 누구보다도 잘 타지만 헤엄치는 건 한 뼘만큼도 가지 못하는 다람쥐였어요.

"너 하늘나라에서 왔다니까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야? 우리가 있는 여기처럼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해?"

"아니야. 우리 엄마와 아빠 밖에 없어."

"엄마와 아빠 밖에 없다니?"

다람쥐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없고 꽃도 없다면 거긴 우리 다람쥐나 나비, 벌들은 못 사는 곳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너 구름 봤지? 그것도 시커먼 구름 말이야."

물방울의 이 말에 다람쥐는 대답했습니다.

"응. 그 구름만 보면 비가 오더라."

"그 구름이 우리 엄마와 아빠야."

"뭐라구?"

다람쥐는 놀라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우리 엄마와 아빠는 비도 내려주고 눈도 내려 주는 거야. 여기 우리가 있는 곳에 말이야. 그 때문에 네가 찾아다니는 잣나무랑 도토리나무들이 자라 나 있는거야. 그리고 꽃도 피고 하지."

"그렇구나."

"넌 물이 무섭다 하지만 고마워해야 한다. 우리 엄마와 아빠가 내려주는 비와 눈이 없으면 온 세상이 바짝 말라 모두 죽는거다."

다람쥐는 물방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람쥐는 언젠가 산에 나물 뜯으러 온 아줌마들이 바위틈에서 졸졸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 마시면서 〈아유. 시원해〉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멧돼지들이 산 아래 개울가로 가서 벌컥벌컥 물을 들이키는 것도 봤습니다. 그때 다람쥐는 물이 참 맛있는가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람쥐는 그 후로 물이 무섭지만 고맙다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끔 물이 흐르는 곳에 가까이가 보기도 했는데 거기서 개구리들이 개울물 속으로 마음 놓고 들어가고 헤엄치며 노는 것을 보고 참 부러워했습니다.

"얘들아, 너네들은 어떻게 해서 물이 안 무섭고 헤엄도 잘 치니?"

다람쥐는 개구리들한테 물었습니다.

"우린 본래 물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거야."

"그건 물고기들이 그런거 아니냐?"

"그렇지만 물고기는 다리가 없어. 땅 위로는 우리처럼 못 다니지."

일러스트레이터 김도연

다람쥐가 개구리들과 주고받는 말을 들은 물방울은 말했습니다.

"너 개구리들이 저러는 걸 부러워 할 것 없어. 너는 너대로 잘 하는 게 있지 않니? 높은 나무 위로 맘대로 올라 다니고 하지 않니? 그 때문에 누구한테 잡혀 먹히는 염려가 없어 좋지 않니?"

"청개구리도 나처럼 나무에도 올라오고 하는데?"

"그건 말이야, 청개구리는 물보다 땅에 주로 살기 때문이야."

그리고 물방울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울가에 가 보면 뱀들이 풀숲에 숨어 있는 데, 왜 그러는 줄 아니? 그것은 바로 개구리를 잡아먹으려 해서다."

"나는 뱀이 안 무서운데 그래?"

"그거야 넌 빨라서 뱀이 못 잡는거지. 그래도 넌 조심해야 돼. 자신만만해 하다가는 큰 일 나는 수가 있어. 뱀은 나무에도 잘 올라가니 말이야."

"그건 그래."

다람쥐는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곳이 많은데 그러면서 물방울 말대로 조심조심 하기 시작했습니다.